

통계학과 정기 교수회의

AUTHOR
최규빈

PUBLISHED
April 30, 2025

참석: 한경수, 김대경, 최혜미, 최규빈, 김광수, 황승용

불참: 안정용, 양성준(연구년), 이영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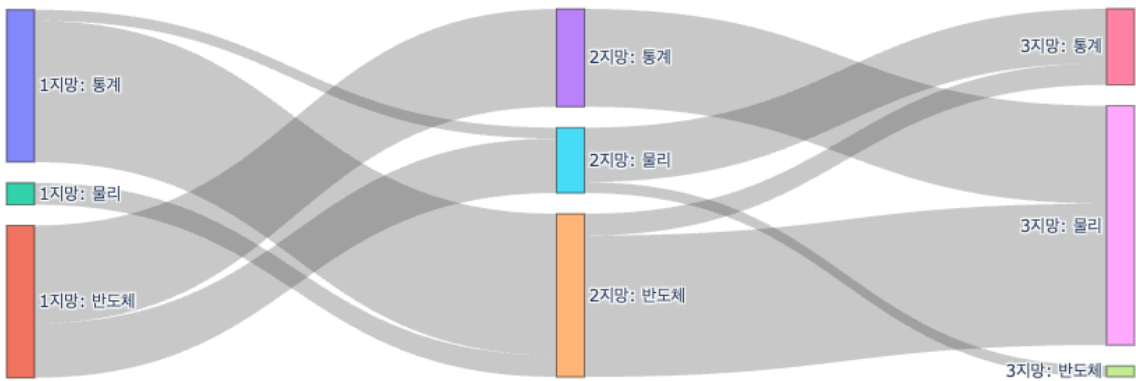
1. 전공 선호도 조사

- 현황: 학생들의 선호전공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중 (5월2일까지)

학과명	기준인원	1지망	2지망	3지망
물리	34	2	6	22
반도체	80	14	15	1
통계	43	14	9	7

- 세부지원내용

- 통반물: 13명
- 통물반: 1명
- 반통물: 9명
- 반물통: 5명
- 물반통: 2명



- Summary

- 자연계열2로 입학하는 학생 152명 중 약 73명정도가 통계학과를 1지망으로 희망할 것 같음.
- (아마도) 최종적으로는 물리학과 24명, 통계학과 56명, 반도체과학기술학과에 72명이 배정될 것.¹
- 융합자율전공에서 통계학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음. (그렇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)

¹ 물리학과 24명의 산출근거는 정원의 70%, 통계학과 52명의 산출근거는 정원의 130%

회의 중 논의사항: 논의사항 없음.

별도 의견: 학과명(통계학과)이 다소 구식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, 명칭 변경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시됨. 회의 이후 확인 결과 학과명 변경에는 약 2-3개월이 소요되며 단순 신청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과정을 거쳐야함. 최근에는 모집단위 광역화 이슈로 인해 명칭 변경 요청이 심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.

2. 전공과목 운영방안 검토

A. 배경 및 문제 인식

- 통계학과 진입 인원 증가로 전공과목 수요 급증 예상
- 수요 예측: 56명, 휴·복학 포함 시 60명 초과 가능. (이 수치는 융합자율전공 진입자, 재수강, 복수·부전공, 연계전공 학생을 모두 0명으로 가정한 추정치)
- 최악의 경우, 2학년 학생들이 2학년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음.

B. 고려 가능한 대안

1. 분반 운영

- 동일 과목을 2개 반 이상 개설하는 방식으로,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생각함.
- 단점은 교원의 수업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임.

2 비공개 강의 전환

- 통계학과 학생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, 특히 2학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- 그러나, 재수강자, 복수·부전공, 연계전공 학생의 수강 기회를 배제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음.

3. 대형 강의실 확보

- 수강 인원을 확대하면서도 대면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.
- 그러나 대형 강의실은 교양과목 중심으로 교육혁신처에서 배정하여 확보가능성이 낮음
- 설령 확보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음.

4. 원격 강의

- 실시간 Zoom 수업 또는 사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 모두 포함됨.

- 최대 100명까지 수강 가능함
- 다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:
 1. 학과 전체 교과목 중 20% 이내에서만 원격 강의 개설 가능
 2. 학생은 한 학기에 2과목 이하의 원격 강의만 수강 가능²
 3. 교원은 한 학기에 1과목만 원격 강의 운영 가능
- 또한 수업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.

² 컴공은 원격강의가 많아 컴공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수강하기 어려움

5. 블렌디드 러닝

- 대면 수업과 비대면 콘텐츠를 병행하는 형태로, 원격 강의보다 제약이 적음. (극단적으로 15주차중 1주차만 비대면으로 진행하여도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를 만족함.)
- 수강 정원은 100명까지 확대 가능하며, 운영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다.
- 다만, 학생 수강 가능 과목 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.

6. 플립 러닝

-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한 뒤, 대면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문제풀이 등을 진행하는 방식.
- 그 외의 내용은 장단점은 블렌디드 러닝과 유사.

고려사항

- 1, 2 는 수강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.
- 60명 초과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~6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.
- 3 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.
- 플립러닝 및 블렌디드 러닝의 세부 조건은 내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.
- 원격 강의의 경우 위원회 요청을 통해 예외 승인 (예를들어 정원을 200명으로 하고 싶다든지) 을 받을 수도 있다.

회의 중 논의사항: 원격강의/블렌디드러닝/플립러닝을 어떠한 교과목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 현실적으로는 회귀분석, 데이터 관리 및 처리 과목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. 해당사항은 추후 소규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 또한 위원회에 정식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과 사유를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도 있음.

회의 이후 확인 결과: 블렌디드러닝과 플립러닝도 학생은 학기당 2과목만 수강가능.

2. 서버실 공사 관련 이슈 최근상황

- 해당 이슈에 대해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나, 통계학과는 회의 중 유감과 간단한 사과 정도의 입장만 표명했으며,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음.
- 이후 스포츠과학과 측에서 법적 대응(소송) 가능성을 언급.
- 소송 이야기가 나온 이후, 관련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.
- 현재로서는 사건이 소송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.

회의 중 논의사항: 논의사항 없음.

3. G-램프

A. 지원규모

- G-램프사업의 일환으로 응용통계연구소에 1500만원 지원됨.
- 모두 연구활동비로 사용가능

B. 연구소 평가방식

- 통계연구소: G-LAMP 관련하여 연구소가 지원받는 금액정리

평가 점수	등급	구성 비율 (%)	해당 연구소 수	지원 금액 (천원)
100-90	S	20	2	50,000
89-80	A	30	2	40,000
79-70	B	30	2	30,000
69-60	C	20	2	지원 없음
59-50	D	-	-	지원 없음

- C 등급을 받은 연구소(거점형)는 기본 지원비(10,000천원)와 연구소 운영비 지급, 인센티브 지원은 없음.
- D 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기본지원비와 인센티브 지원이 없으며 운영비만 지급됨.
- 2회 연속 C등급 또는 1회 D등급을 받을 경우, 최대 지원 금액(기본지원비, 연구소 운영비, 인센티브 포함)은 100,000 천원 한도로 제한.

C. 간담회 내용

- 응용통계연구소는 전임교원수와 외부과제 유치금액 실적은 양호함. (전임교원수는 기준치 대비 116.7%, 외부과제 유치금액은 기준치 대비 97.3%)
- 그러나 논문 수는 크게 부족한 상태임. (기준치 51편, 실적 3편)
- 현재로써는 C등급은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.

회의 중 논의사항: 연구소 평가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추가로 섭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이는 특히 논문 실적 확보 측면에서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, 단기적인 등급 하락(C 등급) 방지를 위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.